

재조일본인 죠코 요네타로 (上甲米太郎)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

박 창 건**

(e-mail : cgpark77@kookmin.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죠코 요네타로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 |
| 2. 재조일본인 죠코 요네타로 | 5. 맺음말 |
| 3. 교육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투쟁 | |
| 3.1. 교육노동운동 | |
| 3.2. 반제국주의 투쟁 | |

키워드 : 教育勞働運動(the education and labor movements), 在朝日本人(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Joseon), 上甲米太郎(Yonetaro Joko), 反帝國主義鬪爭(anti-imperialist struggle), 韓日連帶論(the theory of Korea-Japan solidarity)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재조일본인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郎)의 교육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해 조선인과 공존하려는 한일연대론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재조일본인들은 식민권력과 영합하여 식민지 조선인을 억압하면서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지탱하는 인적자산이었다. 하지만 죠코의 교육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투쟁은 이와 다른 궤적을 보여줬다. 그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하층 관료였던 일본인 교사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조선인과의 공존을 위한 길을 택하는 삶을 걸었다. 그렇지만 죠코의 조선 인식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려는 의도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NAHF-2019-기획연구-34).

**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정치경제 전공

식민지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관념과 조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죠코 요네타로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조선에서 재조일본인을 식민지배자라는 추상적 대상에서 벗어나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조선인과 공존을 지향했던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연대론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식민지 조선의 교육현장과 조선 사회의 실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재조일본인 사회를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구조가 굳어진 시기에 어떠한 계기가 죠코의 조선인식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표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외교·안보·경제·문화 등의 영역까지 확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죠코가 주창한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식민지 시대의 재조일본인은 대체로 ‘식민지배자’, ‘일제 세력’, ‘침략자’라는 인식의 벽에 막혀 한일관계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조일본인들은 특유의 의식과 정신구조를 공유하면서 재조일본인 사회를 형성한 식민지 권력자로서 일제 협력자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식민지 ‘현장인’으로서 식민지 정책에 관여하는 한편, 식민지에서의 삶을 통해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의 정체성 형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제국주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조일본인을 일국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보다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조일본인의 연구를 ‘지배-피지배’, ‘억압-피억압’이라는 이분적 사고를 상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한일연대론으로 저항한 재조일본인의 존재와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한일관계 연구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재조일본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후 죠코 요네타로라는 인물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은 식민지 조선의 공립보통학교에서 근무한 재조일본인 교사가 재임 중 교육노동자조합사건으로 조선인 제자들과 함께 구속되는 등 민족 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주창한 그의 교육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투쟁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죠코 요네타로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구체화하게 되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전체적인 요약과 죠코가 주창한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의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재조일본인 죠코 요네타로

재조일본인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시야 밖에 있었다. 그 이유는 근대 국민 국가의 역사를 둘러싼 생태적-근대적 한계로 출발하여 일제시기 식민지 조선에서 역사는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저항의 역사였기에 그 이외의 역사는 아니라는 관점이 주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재조일본인은 식민지에 정주하면서 식민지 ‘현장’과 ‘현장인’으로 식민정책과 식민지에서의 삶을 통해 식민지 조선을 외형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형성, 변화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역사는 단순한 한국인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가 되어야 하며, 한국의 과거 시공간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조일본인의 연구는 한일관계사의 영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만큼 식민지 조선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조일본인의 존재는 일제의 식민지 침략과 수탈이 조선총독부와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이 결탁하여 총체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알리는 단서를 제공한다. 주지하듯이 식민지는 총독을 정점으로 한 관료와 경찰·군부에 의해 구축되었지만, 식민지 지배체제를 견고하게 만든 주역은 ‘보통’의 재조일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평범한 보통의 일본인들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이른바 ‘풀뿌리 침략’, ‘풀뿌리 식민지 지배와 수탈’ 구조로 이루어졌다.¹⁾ 이러한 맥락에서 재조일본인의 연구는 존재형태를 시기별, 지역별, 계층별로 규명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배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재편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비롯해 재조일본인의 주요 인물들에 관한 생애와 활동의 추적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조일본인 연구가 식민도시의 형성과 관련된 재조일본인의 인구변동, 그들의 사회단체 현황과 그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일본의 식민지배의 성격과 식민지 ‘근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다.²⁾

1)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東京: 岩波新書, 2002).

1876년 부산의 개항과 더불어 조선에 이주한 재조일본인은 강제 병합을 거쳐 패전하여 귀환한 1945년까지 약 100만 명 정도였다. 이들 재조일본인의 조선 이주와 정주의 시기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강화도조약에 의해 최초 개항된 부산으로 이주한 54명을 시작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 잠시 주춤했지만, 전쟁 승리로 다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청일전쟁 이후인 1859년에는 12,303명으로 늘어나, 전해인 1894년 9,354명에 비해 32%나 증가했다. 러일전쟁 승리 이후 통감부 설치의 1906년에는 83,315명으로 증가해, 러일전쟁기인 1904년 31,093명에 비해 약 168%의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1910년에는 통감부 시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71,543명에서 시작하여 1913년까지 10%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의 추세는 1920년 347,850명, 1930년 501867명, 1940년 689,790명, 1944년 912,583명으로 늘어났다.³⁾ 이들 대부분은 조선에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이주하여 특유의 생활의식과 정신구조를 공유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통치에 협력했다. 하지만 일본의 패전 이후 그들은 한일 양국 모두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와 맞물려 재조일본인 연구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재조일본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조일본인의 인구동향, 이동의 양상, 일본인의 피난민 및 사망자수 등에 초점을 맞춘 이주사에 대한 연구;⁴⁾ 재조일본인의 생활의 배경 및 활동, 직업구성 등을 분석한 사회·경제사에 대한 연구;⁵⁾ 셋째, 재조일본인의 교육사에 대한 연구;⁶⁾ 재조일본인의 재산실태와 그들의 기억과 체험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생활사에 대한 연구⁷⁾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식민지 정

2) 城本悠一·木村健二、『近代植民地都市釜山』、(東京: 櫻井書店、2007); 최혜주,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서울: 경인문화사, 2010).

3) 이규수, 「재조일본인의 추세와 존재형태」, 『역사교육』 125호 (2013), pp.46-48.

4) 森田芳夫、『朝鮮終戦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東京: 巖南堂書店、1964); 高吉嬉、『[在朝日本人二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旗田巍と朝鮮·日本』、(東京: 桐書房、2001); Jun Uchida, “A sentimental journey: mapping the interior frontier of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70, no.3 (2011); 木村光彦, 『日本統治下の朝鮮: 統計と實証研究は何を語るか』、(東京: 中公新書、2018); 최혜주 엮음,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서울: 어문학사, 2018).

5) 木村健二、『在朝日本人の社會史』、(東京: 未來社、1989); Jun Uchida,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910-1937*,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2005).

6) 磯田一雄, 「日本の植民地教育による教師と子ども」 『コミュニケーション紀要』 11号, (1997).

치를 둘러싼 문제, 세대간 구분 문제, 경제인 또는 식민지로서의 재조일본인 문제 등과 같은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자기반성의 목표로 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재조일본인의 조선인식이 발생한 원인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죠코 요네타로라는 인물 중심으로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체험과 조선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그가 주창한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살펴보는 것은 ‘공적 기억’에서 ‘개인적 체험’을 통해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의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죠코는 냉혹한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 인권과 복지, 조선 독립에 헌신한 일본인들 중 한 명이다. 죠코는 1902년 일본 에히메현(愛媛縣)에서 농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새로운 농업 경영을 시도하다 실패한 그의 아버지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왔지만, 중학교 수학 때문에 한동안 일본에 남게 된 죠코는 외가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죠코의 어머니 키요(淑) 친가는 아리모토(有元) 가문으로, 외조부는 입헌개진당 소속 중의원을 역임한 하리모토 마사치카(有元正親)이었다. 입헌개진당은 1982년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를 당대표로 결성된 영국식 정치사상을 추구하며, 자유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진보적인 사상을 지닌 정당이었다. 여기에 죠코의 외조모는 기독교 신자였기에 어린 시절 그의 인격 형성과 그 후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죠코는 1920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조선으로 건너왔다, ‘동양의 페스탈로치(Pestalozzi)’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에 입학했다. 단기간의 양성을 마친 후 1922년 경상남도로 와서 조선인이 다니는 공립보통학교 교사가 되어 1930년 체포될 때까지 조선인 학생들과 동고동락하였다. 이처럼 재조일본인으로서 모순된 식민지 사회의 체험을 통해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게 된 죠코의 삶에 대한 연구는 두 시기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신도 토요오(新藤東洋男)와 이케가미 치카하루(池上親春)이다. 이들은 1930년대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교육자 노동조합운동 준비회사건’을 중심

7) 이형식,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보고사, 2013); 전성현, 「식민지와 식민지민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 세계』 48호, (2015); 박경민,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귀결 - 경성 일본인 세화회의 재산 문제와 식민지 지배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21호, (2017); 신승모, 『재조일본인 2세의 문학과 정체성』, (서울: 아연출판부, 2018).

으로 죠코의 일생을 기록한 『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教育と闘った在朝日本人教師の闘いの記録』[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교육과 싸운 재조일본인 교사의 투쟁]』을 출간했다.⁸⁾ 이 시기의 연구는 근대 한일관계사를 일제의 한국 침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본격화되었다.⁹⁾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서 죠코에 대한 연구는 그를 피해자의식을 가진 일반적인 재조일본인과는 달리 제국주의에 맞서서 투쟁한 일본인으로서 평가하는 동시에 한일관계사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연대사를 강조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소노베 히로유키(園部裕之)이다. 그는 1930년대 재조일본인이 참여한 공산주의운동을 정부 사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在朝日本人の参加した共産主義運動: 1930年代における[재조일본인의 참가한 공산주의운동: 1930년대에 있어서]』를 통해 죠코의 사상적 변화 과정을 설명했다.¹⁰⁾ 특히 이 시기는 죠코의 고향인 에히메현(愛媛縣) 야하타하마시(八幡濱)에서 ‘죠코 요네타로 연구회’가 결성되어 죠코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이 연구회를 계기로 1997년에는 ‘죠코 이리이치씨를 둘러싼 모임(上甲伊利一さんを囲う會)’과 2003년에는 ‘죠코 마치코씨를 둘러싼 모임(上甲眞知子さんを囲う會)’이 발족되었다. 이들 유족의 모임 중심으로 죠코 사상의 현재화를 위한 연구에 전력하였고, 동시에 일기 번역작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03년 여름, 유족들이 죠코의 일기 및 재판기록을 학습원대학원 동양문화연구소에 기탁함으로써 죠코 연구가 학술적으로 체계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3년 8월, ‘죠코 요네타로의 일기 읽기 모임(上甲米太郎日記を讀む會)’이 결성되어, 일기에 실린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객관적 실상과 재조일본인의 식민지 조선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일기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그 시대의 객관적 실상, 재조일본인의 조선 사회나 조선 문화에 대한 인식 규명, 자신의 주관적 성향을 비롯해 평범한 20대 재조일본인 남자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8) 新藤東洋男·池上親春、『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教育と闘った在朝日本人教師の闘いの記録: 上甲米太郎と「新興教育」教育者勞働組合運動事件(1930)』、(人權民族問題研究会、1966).

9) 旗田巍、「書評: 上甲先生の健在をよろこぶ-[在朝日本人教師の闘いの記録]をよんで」『朝鮮研究』55号、(1996).

10) 園部裕之、「在朝日本人の参加した共産主義運動: 1930年代における」『朝鮮史研究會論文集』26号、(1989).

갈등 및 의문을 정리하면서 반제국주의 투쟁과 한일연대론에 대한 고심을 통해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모색하려고 했다.¹¹⁾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고려 박물관은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죠코의 일기, 편지, 교원노동자조합사건 판결문 등의 1차 사료로 구성된 공저 『植民地・朝鮮の子どもたちと生きた教師 上甲米太郎(식민지・조선의 아이들과 살았던 교사 죠코 요네타로)』를 출간했다.¹²⁾

이상과 같이 죠코 요네타로의 연구 동향을 종합해 보면, 연구는 1945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죠코의 전체상을 규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죠코의 조선 인식과 그 변화, 그리고 그 의미인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재조일본인들의 내면적 모순과 갈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1922년부터 1930까지 기록된 죠코의 일기이다.¹³⁾ 일기는 식민지 조선에서 그가 교사로서 8년간 생활하면서 남긴 공책 30여권 분량의 중요한 사료이다. 일기는 죠코가 사망 후, 아들인 죠코 이리이치(上甲伊利一)가 소장하고 있다가 2003년 학술원대학원 동양문화연구센터에 기증하면서 일기 전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둘째는 개인 편지이다.¹⁴⁾ 이것은 죠코의 조선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셋째는 1930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예심조서와 신문기록 등의 재판기록이다.¹⁵⁾ 이 것은 죠코의 현실 인식과 조선 인식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넷째는 죠코가 직접적으로 잡지에 투고한 기록들이다.¹⁶⁾ 이 사료들은 죠코의 한일연대론에 대한 내면세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진행된 2차 자료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죠코 요네타로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조명하여 현재 한일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樋口雄一、「朝鮮人民衆と共に歩んだ日本人—布施辰治・上甲米太郎の一生から」『地歴・公民科資料』68号、(2009).
 12) 青木敦子、「ある日本人の朝鮮体験：[上甲米太郎日記]史料紹介」『東洋文化研究』14号、(2006); 上甲まち子・李俊植・辻弘範・樋口雄一、『植民地・朝鮮の子どもたちと生きた教師上甲米太郎』、(東京：大月書店、2010).
 13) 辻大和・富澤萌未、「植民地朝鮮での教員の日記」『東洋文化研究』17号、(2015)、pp.86-87.
 14) 전계논문, pp.89-93.
 15) 전계논문.
 16) 전계논문.

3. 교육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투쟁

조코는 1902년 시코쿠(四國 지방인 에히메현(愛媛縣) 우와군(宇和郡) 센조우무라(千丈大村)에서 아버지 가게요시(景吉)와 어머니 키요(淑)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코 아래로 남동생 6명, 여동생 2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여동생 1명과 남동생 3명은 질병으로 병사하였고, 또 다른 동생은 상하이에서 병사하였다. 결국 가족으로 남은 자는 장남인 조코 요네타로, 아리모토(有友) 가문을 이은 차남인 조코 슈지로(壽次郎), 부산에서 결혼한 장녀인 도시코(敏子)였다. 원래는 600년 전통의 명문가로 알려졌지만, 조코의 유년기 가정형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조코의 아버지는 개화 의식을 가진 인물로, 농업경영 분야에 종사하면서 항상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재배를 시도했다. 굴·배추·벼 등의 재배를 비롯해 양잠업에도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른 지방으로도 확대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러일전쟁 후의 경제 공황이 지주인 조코 일가를 몰락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연이은 사업의 실패로 결국 집안은 몰락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조코의 아버지가 조선은행에서 근무하던 친동생의 소개로 조선에 건너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¹⁷⁾

조코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18세가 되던 1920년 오오즈(大洲)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사의 꿈을 안고 조선으로 이주했다. 이후 조코의 행적은 경성보통고등학교 부설임시교원양성소에서 조선어 교사 교육을 받은 뒤, 1922년 경상남도 함안군의 함안공립보통학교(咸安公立普通學校), 1924년 경상남도 함천군의 야로공립보통학교(冶壚立普通學校), 1927년 경상남도 사천군의 곤명공립보통학교(昆明公立普通學校) 교사로 부임했다. 조코가 교사생활을 하며 남긴 일기에는 재조일본인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표출할 뿐 아니라 일제의 조선 식민정책에 대한 의문을 기술하고 있다.¹⁸⁾ 조코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그가 조선에 온 초기 만해도 일반적인 재조일본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교사생활을 하면서 변화하게 되었다.¹⁹⁾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조코는 일본제국의

17) 조코의 아버지가 언제 조선에 건너갔을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한일병합의 직후 경이라고 조코는 추측하고 있다. 新藤東洋男·池上親春의 전제서, p.14.

18) 吉澤佳世子, 「在朝日本人教師·上甲米太郎の日記と關連史料」 『日本植民地研究』 16, (2004).

19) 함안공립보통학교 시절의 조코는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과는 달리, 당시의 조선이 놓여있던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에 대하여 여전히 문제로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식민지 지배의 모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문명 전파자에서 조선 독립을 위한 조력자로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장에서는 죠코의 교육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해 그의 조선 인식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교육노동운동

죠코 요네타로는 1928년 10월 전주사범대학교 교장의 딸인 후지와라 후미코(藤原文子)와 결혼했지만 10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 이듬해 가마하라 마사코(鎌原政子)와 재혼했고, 그 사이에 장남인 이리이치(伊利一)가 태어났다. 두 번의 결혼과 출산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기독교주의적 인도주의가 더욱더 깊어져 그를 교육노동운동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²⁰⁾ 특히 죠코는 사회사업의 미시적 성격과 사회주의의 거시적 성격 사이의 간격을 ‘노동조합운동’ 통해 메우고자 했던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의 사상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²¹⁾ 이 시기 죠코는 사회과학 서적을 집중적으로 탐독하면서 그때까지 품고 있었던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기르고 교육노동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8년부터 죠코는 사회과학 서적을 더욱 집중적으로 탐독하기 시작했다.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의 「第二貧乏物語[제2궁핍 이야기]」가 『改造』에 연재될 무렵 기독교적 사상에 꿈꾸며 가가와와 개인잡지 『雲の柱』을 접했었지만 어느새 『敵旗』와 같은 좌익 잡지를 탐독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기르고 교육노동운동을 통해 직접 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죠코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조선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으며, 조선의 독립은 일본의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 투쟁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즉 죠코는 식민지 조선에서 재조일본인으로서의 민족적 우월감을 버리고 민족 간 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죠코 요네타로를 사회주의자, 반제국주의자라는 사상적 담론에 대한 평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현실에 자각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조선관이나 일본인으로서의 우월감을 벗어나 구체적으로 사회 변혁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죠코의 사상적 자기변혁은 식민지 교육으로부터의 해방, 민족교육의 수립

20) 日本コリア協會·愛媛、『植民地朝鮮と愛媛の人ひと』、(松山市: 愛媛新聞社、2011)、pp.336-337.

21) キリスト教新聞社、『資料集[賀川豊彦全集]と部落差別』、(東京: キリスト教新聞社、1991).

을 위해 조선인의 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원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죠코가 펼친 교육노동운동의 특징은 첫 번째, 일본 내지의 교육노동운동을 조선에서도 실행하고자 한 점; 두 번째,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대운동을 전개한 점; 세 번째, 조선에 내재된 민족차별, 교육문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계급차별 등을 고발하고 나아가 조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²²⁾ 죠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김재용과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이다. 죠코가 처음으로 교편생활을 보냈던 함안공립보통학교에서의 2년 동안 쓴 ‘일기’에는 김재용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김재용은 이 시절 담당했던 학생들 중의 한 명이었다. 그녀는 늦게 입학한 관계로 죠코와는 몇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제자이자 첫사랑이었던 김재용과의 교류가 함안공립보통학교를 떠나 군복무를 하고 있었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야로보통학교에 근무하면서부터 그들의 관계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 시기 김재용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민족적 편견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죠코는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26년 11월의 ‘일기’에 의하면, 죠코가 김재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일기에는 김재용을 S.K.라고 기록했고 다음과 같이 고뇌했던 모습이 엿보인다. 식민지 조선에서 내선결혼이 강조되던 시대 분위기와는 달리, 죠코는 김재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재용에 대한 사랑,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 결혼이라는 것은 둘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자식들과 부모, 형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²³⁾ 죠코가 김재용과 결혼을 단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장남이고 게다가 크리스천, 굉장한 퓨리탄이었고, 상대방도 내향적인 사람이었니 진전이 없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말로 표현한 적도 없고 그녀가 먼저 결혼해버렸다. 하지만 여기저기에 알려진 나의 존재가 결혼에 방해가 되었던 모양이다.²⁴⁾

22) 이준식, 「제조일본인 교사 죠코의 반제국주의 교육노동운동」 『한국민족사운동사연구』 49호, (2006), pp.26-27.

23) 『일기』, 1926년 11월 17일자, 11월 28일자, 12월 20일자, 12월 19일자.

24) 上甲米太郎, 「昭和 교육史への証言: 第四回“春窮”下の闘い民族教育の黎明のために」 『教育評論』 4月号, (1969), p.68.

이처럼 죠코가 김재용과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던 시대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죠코는 종교적 힘을 빌리려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²⁵⁾ 죠코는 김재용과의 이루지 못한 애정을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적 편견과 재조일본인들의 조선 인식과 대우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때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죠코는 일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둘째, ‘신흥교육’이란 잡지와와의 만남이다. 이 잡지는 1930년 8월 도쿄에서 교육학자 야마시타 토쿠지(山下德治) 소장이 설립한 신흥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한 기관지이다. 야마시타의 신흥교육연구소는 교육 연구자나 청년들을 주체로 일본 교육 계몽 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신흥교육’의 창립 선언은 조직으로 하는 교육자의 정치적 실천형태는 교육노동자의 단결에 의한 교육노동자조합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운동은 죠코가 교원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일본에서 일어났던 ‘신흥교육’을 조선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죠코는 9월에 발간되는 ‘신흥교육’ 창간호 광고를 신문에서 보자마자 구독을 신청했다. ‘신흥교육’은 다른 교육 잡지에서 볼 수 없는 신선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각각의 문제를 신흥 계급의 입장에서 분석하거나 날카롭게 비판, 폭로 또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교육을 소개하고 있었다.²⁷⁾ 이러한 ‘신흥교육’을 구독하면서 죠코는 교원노동조합운동에 참여할 의지를 다지면서 재조일본인 교사로서 당면한 현실과 좌절에 대한 글을 투고하기도 했다.²⁸⁾ 이 무렵부터 죠코는 실천 활동에 돌입 재조일본인 교사들과 함께 운동을 넓히려 했지만, 그 반응은 냉담하게 돌아왔다. 이에 죠코는 졸업생 제자이자 경성사범학교에 재학 중인 조판출과 상의하여 그의 동료인 기쿠치 데루오(菊地輝郎)와 토쿠다 아키라(徳田明) 일본인 학생 2명과 오성순 조선인 1명을 중심으로 독서회를 출범시켰다.²⁹⁾ 독서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민족의식과 비판적인 사

25) 『일기』, 1926년 2월 22일자.

26) 日本コリア協會·愛媛의 전게서, pp.339-340.

27) 森谷清, 「教育労働運動と教育研究運動: 新興教育研究所の創立と日本教育労働者組合の結成」 『教育労働運動の歴史(労働運動史研究52号)』, (東京: 労働旬報社, 1970), pp.94-98.

28) 上甲米太郎, 「朝鮮一向志, 朝鮮の一教師より」 『新興教育』 3号, (1930).

29) 井野川潔·森谷清·柿沼肇, 『風の中の教育: 1930年代教育運動』, (東京: 新日本出版社, 1971), pp.256-257.

회의식을 갖춘 민족운동의 예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학교 교육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지적 갈증을 ‘신흥교육’ 구독과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을 섭렵하면서 민족의 진로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조코는 조선인과의 연대 운동을 통해 계급적, 민족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식민지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계하기 위해 교육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셋째,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의한 체포이다. 1930년 12월 5일 조코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 내 사회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치안유지법은 시행 초기에는 공산당원만을 기소할 수 있었지만 1928년 치안유지법 개정을 통해 당원이 아닌 협조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 조항을 앞세워 조선총독부는 식민조선에서 조선인의 사상문제의 근원이 독립에 있다고 파악하고 엄벌주의를 내세워 치안유지법을 집행하게 되었다. 8개월간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된 혹독한 심문과 수사 끝에 ‘교육노동자조합준비회 사건’이라는 엄청난 시국사건으로 포장되어 세상에 드러났다. 사실 조코는 공산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단지 조코는 교원노동조합의 조선 지국을 조직하고자 했고, 이 활동을 위해 조선인 젊은 교사들을 포섭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조코는 교원노동운동자조합이라는 반제국주의 운동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목표로 조선인과 연대하여 교사들이 단결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신흥교육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처럼 조코의 교원노동운동자조합은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한 프롤레타리아 교육노동운동인 동시에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일제 당국은 야마시타를 중심으로 한 ‘신흥교육’ 참여자들과 조코의 교육노동운동을 공모로 단정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³⁰⁾ 그 결과 조코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노동운동을 펼쳤다고 믿었지만, 수업 도중에 연행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 강한 저항감이 반제국주의 투쟁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코는 자신이 꿈꾸는 식민지 지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역죄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할 만큼 순진하고 무모했는지도 모른다.

30) 上甲まぢ子·李俊植·辻弘範·樋口雄一、『植民地・朝鮮の子どもたちと生きた教師-上甲米太郎』、(東京: 大月書店、2010)、p.19.

3.2. 반제국주의 투쟁

죠코가 이끌었던 교육노동조합운동의 교육노동운동은 일본의 교육노동운동의 방침에 따라 조선에서 시행한 프롤레타리아 교육운동으로써 반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조선민족 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죠코는 조선인을 해방시키고 사회주의 교육의 실천을 위해 조합을 조직하고 운동을 펼치려고 했으나, 도중에 구속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죠코가 반제국주의 투쟁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1930년 12월 민중탄압법인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보낸 2년간 조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제 식민지의 모순을 인식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죠코는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로 반제국주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우선 교육노동사건의 판결로 이전에 받았던 위계 훈등이 박탈됨에 따라 관임관인 교사의 길은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여동생인 도시코(敏子) 집에서 신세를 지며 부산 동래구에서 하천공사현장의 계산대 노동, 재일생명 보험판매원 등으로 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노동운동으로 구속당하기 전에 결혼했던 마사코(政子)와의 이혼, 도시코(稔子)와의 재혼을 겪는 등 안정된 생활을 이루지 못했다. 옥고를 치른 뒤 죠코는 진주 도심에 있었던 경성일본 진주지국에서 지국장 겸 주재기자로 일을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 1941년 홋카이도(北海道) 쿠시로(釧路) 지역에 있는 태평양탄광에서 노무담당 겸 조선어 통역으로 근무하였고, 1942년 큐슈 오무타시(大牟田市) 미쓰이 미이케(三池) 탄광으로 이동하여 조선인 노무자들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어나갔지만 1949년에 해고되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오무타시에서 살면서 그림 연극 장사를 하는 한편 조선어를 구사하면서 재일조선인의 민원을 상담해 주는 시민활동가로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어갔다. 이처럼 죠코가 조선민족해방을 위한 반제국주의 투쟁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테이’와의 만남이다. 죠코는 2년에 걸쳐 세 차례의 재판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결국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서대문형무소 안에서 보낸 기간 동안 유창한 조선어 능력으로 조선 혁명가들과 ‘통방’하면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한 사상적 무장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와세다대 학생이자 전라도 공산당 사건으로 구속된 테이를 만

나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을 시사 받았다. 죠코는 테이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테이라는 와세다 대학의 학생은 이론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나는 상식으로 잡지에서 얻은 지식밖에 없었지만 여러 가지를 그에게서 지도받았다. 교육노동운동의 필자로서 내가 한 일은 역사적으로 옳았다고 믿었다. [중략] 조선을 위한 마음으로 이러한 운동에 참여한 것이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고 조언해 주었다. 이러한 조언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평생의 방침으로 일관해서 투쟁하겠다는 생각을 오늘까지 지속될 수 있게 해 주었다.³¹⁾

이처럼 죠코는 테이를 만나 사회주의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죠코는 자신이 교원노동조합의 수립을 통해 조선민족을 위한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해 분주했지만, 여전히 서적에서 얻은 지식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 지도를 테이에게 받았다. 더욱이 교원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운동을 일으킨 것에 대한 테이의 높은 평가에 감명을 받아 ‘사회주의를 위해 평생을 받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³²⁾ 이러한 사실에서 죠코는 1927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사회주의자로 완전히 전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죠코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바로 테이라는 조선인 공산주의자와의 조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홋카이도 탄광행이다. 1941년 죠코는 39세가 되던 해 특별고등경찰의 추천으로 홋카이도 쿠시로(釧路)에 위치한 미츠이(三井) 계열인 태평양탄광에 조선인 관리인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죠코의 장남인 이리이치(伊利一)에 의하면, 식민지 조선에서 죠코를 감시하는 역할의 특별고등경찰은 조선인 노동자 모집을 해오던 사촌에게 부탁하여 조선어가 유창한 죠코를 노동자 관리자로서 탄광에 보냈다고 한다. 치안유지법의 전과가 있는 죠코로서는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회상하고 있다.³³⁾ 이러한 특별고등경찰의 추천은 선의라기보다는 일본인 관리 대상인 죠코를 자기 관할 구역인 진주에서 방출시켜 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된다.³⁴⁾ 물론 죠코는 당시 특별고등경찰의

31) 金嬉老公判對策委員會、『金嬉老問題資料集7 証言集3 証人 上甲米太郎 生協事務員』(靜岡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所速記官 油井幹雄)、(1972)、p.11.

32) 전게서.

33) 上甲伊利一、「在朝日本人の參加した共產主義運動：1930年代における」『朝鮮史研究會 論文集』第26号、(1989).

소개로 탄광에 취직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가 추진하는 황국신민화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탄광에 조선인 관리인으로 취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추진하였던 조선인 강제노동에 자신도 가담하게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죠코가 홋카이도 탄광 근무를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추진했던 조선인 강제노동에 본인도 직접 가담해서 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탄광에서 죠코는 노동자 모집 급여 절차, 일시 귀국 지원, 병원 입원 지원 등 주로 조선인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족차별, 사망사고, 열악한 노동 조건 및 거주 환경, 노동쟁의 등을 죠코는 조선인 입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일제 식민지 정책에 동조했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죠코는 1944년 큐슈 오무타시(大牟田市)에 있는 미이케(三池) 탄광으로 조선인 노동자들과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패전을 맞이하였다. 탄광 관리인으로 일하는 동안 죠코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을 하지는 못했다. 즉 죠코의 사회주의 사상은 관념에 머문 채 현실과 타협하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일제의 패전이다. 일본 제국은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에 통보하였고, 8월 15일 낮 12시에 쇼와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일본 제국주의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황된 슬로건을 내걸고 전쟁을 벌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³⁵⁾ 일본의 패전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죠코를 실천하는 행동가로 만들었다. 비록 전쟁이 끝났지만 죠코가 일본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녹록치 않았다. 죠코는 1946년 패전 이후에도 근무했던 미이케(三池) 탄광에서 조합운동 활동 때문에 해고당했고, 1950년 6.25전쟁 반대 전단지를 배부하다가 자신을 대신하여 장남인 이라이치(伊利一)가 구속되기도 했다.³⁶⁾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죠코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위한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활동에 참여할 때 항상 주변에는 조선인들이 함께했다. 먼저 미이케 탄광 노동자가 모여 사는 오

34) 上甲まち子·李俊植·辻弘範·樋口雄一の 진게서, p.110.

35) 고케츠 아즈시(저)/박현주(역), 『쇼와 천황과 일본 패전』, (서울: 제이앤씨, 2010).

36) 上甲伊利一、「半植民地教育運動家として治安維持法に問われた若き在朝鮮日本人教師」『治安維持法と現代』春季号、(2004)、p.143.

무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오무타 지역에서 그림 연극 공연단을 결성하여 탄광에서 종사하는 조선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민원을 상담해 주었다. 더욱이 1952년 ‘일본아이들을 지키는 모임(日本子どもを守る會)’, 1956년 ‘오무타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大牟田子どもを守る會)’의 설립에 역할을 하였고 해당 지역 교육위원 선거 후보자로 나서기도 했다. 특히 조코는 미이케(三池) 투쟁과 아타즈케(板付) 미군기지 반대 투쟁과 같은 반제국주의 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다.³⁷⁾ 이후 동경으로 활동의 무대를 옮겨 조코의 사회주의 투쟁은 지속되었다. 조코는 일조협회에 가입하여 일본과 조선의 우호증진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였고, 일조학원의 강사로서 조선어는 물론이고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실태에 대한 글과 재판의 증인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앞섰다.³⁸⁾ 다시 말하면 일제의 패전은 조코를 사회주의 사상가에서 실천하는 운동가로서 반제국주의 투쟁에 앞장서게 했다.

4. 조코 요네타로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조코를 이데올로기의 벽을 뚫고 조선인과 연대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펼친 인물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우수한 개인의 행동에 불과했고 조직적으로 투쟁을 벌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지배 논리가 확립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소극적인 조선 민족해방운동 자세를 취한 일본 사회주의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코의 역사적 위치와 의미를 평가하여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실천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인의 편에 서고자 했던 소수의 선각자 혹은 친구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박열 재판의 변호인으로 유명한 인도주의적인 일본인 인권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나, 혹은 ‘조선의 미’를 승화시켜 민예가 지닌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광화문의 파괴를 막았던 지

37) 上甲まち子·李俊植·辻弘範·樋口雄一의 진게서, p.27.

38) 磯田一雄、「植民地教育と闘った日本人教師・上甲米太郎」『植民地朝鮮と愛媛の人々』、(東京: 愛媛新聞社、2011)、p.135.

39) 梶村秀樹、「排外主義克服のための朝鮮史」、(東京: 青年アジア研究會、1990).

식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기억할 만한 이름일 것이다. 그런데 죠코는 조선인 좋은 ‘친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민족 해방운동을 통해 ‘동지’가 되고자 꿈을 꾸었다. 대체 이토록 급진전한 죠코의 변신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죠코가 읽었던 책과 글,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관념과 이념, 사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순수한 성품,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기독교적 박애주의, 일본인 교사로서의 번뇌를 극복하고 ‘페스트랄로치’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조선인과의 교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죠코가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과 같은 변혁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조선인과의 교류이다. 1920년대 식민지배 하의 사회 구조는 대다수 농민과 지주가 주요 계급을 형성하고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 농민은 소수의 일본인들에게 민족적·계급적 억압을 받고 있었다. 죠코는 조선 민중들의 이러한 처지를 벗어날 방법은 민족독립과 사회주의 혁명뿐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죠코는 1927년 11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접하기 이전까지는 ‘합법’이란 범주 안에서 관념에 머무는 수준으로 행동하였고 기독교 사상에 머무는 수준의 보통의 재조일본인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죠코의 사상적 변혁은 기독교만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하면서 식민지 모순 인식에 따른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독서의 지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극을 받으며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⁴⁰⁾ 특히 서대문형무소에서 보낸 2년 동안 간도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3명의 인물에게서 무장투쟁과 독립운동의 실태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것과 와세다대 대학생이자 전라도 공산당 사건으로 구속된 테이를 포함한 2명의 조선인에게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시사 받은 것은 죠코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싹트게 만든 출발점이었다. 더욱이 1932년 11월 28일, 2년의 실형 5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후, 죠코는 조판출을 비롯한 이전의 동일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예전처럼 조선인과 함께하는 삶에서 구속 전처럼 변함없는 동지애를 보였다. 이는 조선인들이 죠코를 인정해 주었기에 진주에 정착하면서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지속적으로 고민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석방 후 진주에서의 죠코와 조선인들과의 생활을 히구치 유이치는 다음

4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p.309.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주에는 조코의 지인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는 같이 구속된 제자인 조판출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판출은 부산에서도 같이 일하고 행동도 함께 하였다. 같이 행동한 사람과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조코가 전향하여, 조선 통치에 찬성하는 것 같았으면 조판출과도 함께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⁴¹⁾

이처럼 조코가 이론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해 인지한 것은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조선인 사회주의자의 영향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조선인들과의 교류는 조코가 주창한 민족우월감을 넘어 민족간 연대를 중시하는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의문이다. 조코는 1928년 28살이 되던 해 후미코(文子)와 결혼하고도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져 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부터 조코는 본격적으로 교육노동운동에 몰두하게 되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터져 나온 반제국주의 투쟁은 식민지 조선에서 학생이 아니라 교육자 중심의 최초 교육노동조합 결성이 시도된 것이다. 조코는 비참한 농촌의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서적을 탐독하며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기르고 교육노동운동을 통해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의 실행을 구체화시켰다. 조코는 사회 변혁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즉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조선인의 행복은 있을 수 없으며,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과 일본의 노동자와 농민과의 연대를 통해 투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⁴²⁾ 이 무렵부터 조코는 소극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한일연대를 통해 조직적으로 교육노동운동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조코는 교원노동조합이라는 제국주의 교육을 부정하고 청소년을 새로운 미래의 주역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흥교육을 통해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공고히 하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불법성을 알리기도 했다. 더욱이 조코는 조선 독립의 주

41) 樋口雄一、「上甲米太郎の間いかけるもの」『植民地・朝鮮の子どもたちと生きた教師上甲米太郎』、(東京: 大明書店、2010)、p.109.

42) 上甲米太郎、「春窮の農村から: 植民地・朝鮮でのただかい」『いばらの道をふみこえて: 治安維持法と教育』、(東京: 民衆社、1976)、p.48.

역으로 청소년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선의 젊은 교사들과 함께 교원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했다. 이처럼 죠코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은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김희로 사건’ 재판 증언이다.⁴³⁾ 1971년 죠코가 69세를 맞이했을 때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희로 사건의 증언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 사회의 한국인 멸시관 및 조선인이 직면한 궁핍하고 가혹한 현실에 대해 폭로했다.⁴⁴⁾ 게다가 전후 회고록을 통해 예전 일본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일본인과 조선 식민지 시대를 동경하는 일본 내부의 분위기를 우려했다. 그는 재판의 증언을 통해 일제의 조선 수탈과 일제의 침략 역사를 증언하면서, 전쟁 책임 문제를 제기했었다.⁴⁵⁾ 특히 죠코는 교사로, 조선인 관리인으로 일본 식민지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일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김희로 재판에서 증언했다.

저는 어떻게든 보답해야 된다고, 일본의 침략 역사를 주변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조선화보’를 주변에 배부하거나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 가입하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 노력하기도 했고, 의뢰받고 조선어를 가르치거나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은데 본인의 생활도 있기 때문에 ... 부족하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보답을 실천 중입니다.⁴⁶⁾

이처럼 김희로 사건의 재판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죠코는 조선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보답을 실천했다. 김희로 사건 당시 죠코의 증언에는 그 자신의 사상인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이 담겨져 있다. 죠코의 사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시도할 때 김희로 재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평생을 조선인과 함께 한 죠코 요네타로는 ‘조선의 친구’로 살다가 1987년 86세의 나이로 그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죠코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은 사후에 더욱 더 높이 평가받았다. 2011년 죠코 요네타로 현창회(上甲米太郎顯彰會)는 에히메현(愛媛縣) 야하타하마시(八幡浜市)에 ‘일조우호에 생애를 받친 사람 죠코 요네타로’라고 기록한 현창비를 건립하였다.

43) 김희로(金嬉老)라는 재일조선인이 시즈오카에서 빗 독축을 하는 야쿠자를 총으로 사살하고 인질극을 벌이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항의했던 사건.

44) 上甲まぢ子·李俊植·辻弘範·樋口雄一の 전게서, p.135.

45) 金嬉老公判對策委員會의 전게서, pp.12-14.

46) 전게서, p.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코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은 모든 차별의 극복과 연대의 획득이란 맥락에서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 파기 문제 등으로 극도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양국의 시민사회연대가 형성돼서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역시 조코의 한일연대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 중국 강제연행 피해자와 일본 기업과의 화해 성립에 힘쓴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는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 사회가 제대로 마주해야 한일 우호를 쌓아나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⁴⁷⁾ 이런 차원에서 우치다 변호사를 비롯한 일본 사회운동가들은 최근 ‘한국은 적인가’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한국이 결코 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시민사회로 확산되면 양국관계가 얼어붙은 이유가 궁급할 것이고, 정보 교류를 통해 오래전부터 이어진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조코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은 극도로 냉각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과거의 교훈이자 현재에 적용 가능한 접근일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재조일본인으로서 민족의 우월감을 넘어 민족간 연대를 주창한 조코 요네타로의 생애와 활동을 통해 일본인이지만 조선인과의 공존을 모색한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살펴보고자 했다. 조코는 일반적인 재조일본인과 철저한 반제국주의와 대결한 일본 사회주의자 혹은 ана키스트의 중간위치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일제 패전 이후 조코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관념에서 벗어나 실천하는 행동으로 조선인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제 강점기 조코의 조선인 인식은 어중간한 입장에서 사회주의 관념에 머물러 있었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조코의 과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객관적 입장에서 그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의 실체를 명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재조일본인들과 상반된 길을 걸었던 조코에 대한

47) 『중앙일보』, 2019년 7월 31일자 참조.

‘과대 평가’는 구체적인 죠코의 조선인 인식 변화와 그 의미를 간과한 결과로 보인다. 죠코의 조선인 인식은 일정한 변화의 형태를 나타냈다. 그의 ‘일기’와 ‘김희로 사건 재판기록’에서 드러났듯이, 확고한 사상의 영향에 따른 조선인에 대한 인식 변화라기보다는 조선의 현실과 일제 식민지 정책의 본질을 통찰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에 관심을 보였다. 죠코의 조선 이주와 교육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이주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이 조선으로 건너온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는 이주 초기에는 보통의 재조일본인들과 같이 ‘조선 멸시관’에 젖어 있었으며 천황제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선의 문화와 조선인을 이해하게 되었고 조선의 비참한 현실에 눈을 돌렸다. 결국 그 원인이 일제의 조선 침략에 따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을 포함한 조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에서 찾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죠코의 일기를 통해 당시 식민지 구조의 일상을 들여볼 수 있었다. 일기는 죠코의 내면적 모순과 갈등을 미시적으로 엿볼 수 있었고, 당시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그의 모순적 사고와 행동, 내적 갈등과 균열이 반복되는 내면적 세계와 조선인 인식의 다층성을 극명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에 건너온 죠코가 조선에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인을 대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의 재조일본인 조선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후 교사가 되어 유창한 조선어를 구사하면서 조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참혹한 현실의 근본 해결책을 사회주의 이론에서 찾았고, 그 방법으로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죠코의 조선관에 대한 변화는 조판출·김재용 등 조선인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어 조선 사회주의자 테이 등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로 죠코가 식민지 조선의 교육과 사회운동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그만큼 그의 시도는 고립적이고 단발적이었다. 왜냐하면 죠코는 주도면밀하고 조직적인 혁명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육노동조합 준비회 사건’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인물이 모두 다섯 명에 지나지 않았고 사건의 내용도 조합 결성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결성 모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살펴볼 때 오히려 일제의 특별고등경찰이 사건을 사실 이상으로 지나치게 축소봉쇄하고 과대 포장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죠코 요네타로의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

을 그리 가볍게 치지도외(置之度外)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조코의 연구는 식민지 지배자인 일본과 피지배자인 조선 사이에 가로놓인 거대한 억압과 차별의 장벽을 넘어 민족간 연대감을 형성한 반제국주의 한일연대론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편)(1990) 『한민족독립운동사 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고케츠 아츠시(저)/박현주(역)(2010) 『쇼와 천황과 일본 패전』, 서울: 제이앤씨.
 박경민(2017)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귀결 - 경성 일본인 사회회의 재산 문제와 식민지 지배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21호.
 신승모(2018) 『재조일본인 2세의 문학과 정체성』, 서울: 아연출판부.
 이규수(2013) 「재조일본인의 추세와 존재형태」 『역사교육』 125호.
 이준식(2006) 「재조일본인 교사 조코의 반제국주의 교육노동운동」 『한국민족사운동사연구』 49호.
 이형식(2013)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보고서.
 전성현(2015) 「식민지와 식민지민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 세계』 48호.
 최혜주(2010)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서울: 경인문화사.
 _____ 엮음 (2018)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서울: 어문학사.
 青木敦子(2006) 「ある日本人の朝鮮体験: [上甲米太郎日記]史料紹介」 『東洋文化研究』 14号.
 磯田一雄(1997) 「日本の植民地教育による教師と子ども」 『コミュニケーション紀要』 11号.
 _____ (2010) 「上甲米太郎の問いかけるもの」 『植民地・朝鮮の子どもたちと生きた教師上甲米太郎』, 東京: 大明書店.
 _____ (2011) 「植民地教育と闘った日本人教師・上甲米太郎」 『植民地朝鮮と愛媛の人々』, 東京: 愛媛新聞社.
 井野川潔・森谷清・柿沼肇(1971) 『風の中の教育: 1930年代教育運動』, 東京: 新日本出版社.
 梶村秀樹(1990) 『排外主義克服のための朝鮮史』, 東京: 青年アジア研究会.
 木村健二(1989)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東京: 未來社.
 木村光彦(2018) 『日本統治下の朝鮮: 統計と實証研究は何を語るか』, 東京: 中公新書.
 金嬉老公判對策委員會(1972) 『金嬉老問題資料集7 証言集3 証人 上甲米太郎 生協事務員』, 静岡地方裁判所刑事部 裁判所速記官 油井幹雄.
 キリスト教新聞社(1991) 『資料集[賀川豊彦全集]と部落差別』, 東京: キリスト教新聞社.
 高吉嬉(2001) 『[在朝日本人二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旗田巍と朝鮮・日本』, 東京: 桐書房.
 城本悠一・木村健二(2007) 『近代植民地都市釜山』, 東京: 櫻井書店.
 新藤東洋男・池上親春(1966) 『日本帝國主義の植民地教育と闘った在朝日本人教師の闘いの記録: 上甲米太郎と「新興教育」教育者労働組合運動事件 (1930)』, 人権民族問題研究会.

- 園部裕之(1989) 「在朝日本人の参加した共産主義運動: 1930年代におけ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6号.
- 上甲伊利一(1989) 「在朝日本人の参加した共産主義運動: 1930年代におけ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26号.
- _____ (2004) 「半植民地教育運動家として治安維持法に問われた若き在朝鮮日本人教師」 『治安維持法と現代』 春季号.
- 上甲米太郎(1930) 「朝鮮一向志, 朝鮮の一教師より」 『新興教育』 3号.
- _____ (1969) 「昭和 교육史への証言: 第四回“春窮”下の闘い民族教育の黎明のために」 『教育評論』 4月号.
- _____ (1976) 「春窮の農村から: 植民地·朝鮮でのただかい」 『いばらの道をふみこえて: 治安維持法と教育』、東京: 民衆社.
- 上甲まち子·李俊植·辻弘範·樋口雄一(2010) 『植民地·朝鮮の子どもたちと生きた教師-上甲米太郎』、東京: 大月書店.
- 高崎宗司(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東京: 岩波新書.
- 辻大和·富澤萌未(2015) 「植民地朝鮮での教員の日記」 『東洋文化研究』 17号.
- 樋口雄一(2009) 「朝鮮人民衆と共に歩んだ日本人—布施辰治·上甲米太郎の一生から」 『地歴·公民科資料』 68号.
- 日本コリア協會·愛媛(2011) 『植民地朝鮮と愛媛の人ひと』、松山市: 愛媛新聞社.
- 旗田巍(1996) 「書評: 上甲先生の健在をよろこぶ-[在朝日本人教師の闘いの記録]をよんで」 『朝鮮研究』 55号.
- 森田芳夫(1964) 『朝鮮終戦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東京: 巖南堂書店.
- 森谷清(1970) 「教育労働運動と教育研究運動: 新興教育研究所の創立と日本教育労働者組合の結成」 『教育労働運動の歴史(労働運動史研究52号)』、東京: 労働旬報社.
- 吉澤佳世子(2004) 「在朝日本人教師·上甲米太郎の日記と関連史料」 『日本植民地研究』 16号.
- Uchida, Jun(2005)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910-1937*,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 _____ (2011) “A sentimental journey: mapping the interior frontier of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70, no.3.

논문 투고 일자 : 2019. 11. 29.
논문 심사 일자 : 2020. 01. 28.
게재 확정 일자 : 2020. 01. 30.

 <要旨>

在朝日本人上甲米太郎の反帝国主義韓日連帯論

朴昶建

本研究は、植民地朝鮮における在朝日本人上甲米太郎の教育労働運動と反帝国主義闘争の検証を通じて、日本人と朝鮮人が共存する方案として提示された「韓日連帯論」を再評価する。議論の焦点は、一般の在朝日本人とは異なる道を歩んできた上甲の教育労働運動と反帝国主義闘争が、容易ならざる韓日関係に対していかなる示唆を与えうるか考察することにある。注目されるのは、上甲が、日帝強占期の植民地体制を維持する下層官僚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日本人教師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権力を行使することより、朝鮮人との共存の道を選んだという事実である。いかなる理由から、上甲は日本帝国の文明を伝播するのではなく、朝鮮独立のための反帝国主義闘争を展開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ろうか？ この問いから出発した本研究は、植民地朝鮮における「支配-被支配」「抑圧-被抑圧」という二分的思考を相対化する契機になるであろう。また、反帝国主義闘争において韓日連帯論で抵抗した朝日本人の存在とその意味を明らかにする作業は、韓日関係に関する研究の全体像を把握するのに役立つと考えられる。

The anti-imperialism of Korean-Japanese solidarity of Yonetaro Joko,
a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Joseon

Park, Chang-Gun

This paper aims to reevaluate the theory of Korean-Japanese solidarity, suggesting a how Japanese and Koreans might have coexisted in the education and labor movements and anti-imperialist struggle of Yonetaro Joko, a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Joseon. Joko's life, which was very different from the average Japanese in colonial Joseon, contains lessons applicable to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f note is the fact that Joko chose to coexist with Koreans rather take advantage of his power as a Japanese teacher, a low official whose purpose was maintain the colonial system and Japanese colonial rule. Why did Joko transition from a propagandist of Japanese civilization to a supporter of Joseon's independence? This study, which began with this question, could be an opportunity to relativize such binary thinking as so-called "dominance and subordination" or "repression and anti-repression" in colonial Joseon. In addition, the work of revealing the existence and meaning of Japanese settlers who resisted Korean-Japanese solidarity and the anti-imperialist struggle in colonial Korea will help us to grasp the complete pic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t that time.